

노태문 사장 “연말까지 2억대 갤럭시 제품에 AI 적용할 것”

S21·A시리즈까지 '서클 투 서치' 적용
온디바이스 AI 고도화로 대상 확대
XR생태계 구성 뒤 제품 출시 결정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사진)이 올해까지 2억대의 갤럭시 제품에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추진해 온 확장현실(XR) 사업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2억대 제품에 AI 적용

노 사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1억대의 갤럭시 제품에 AI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연말까지 2억대의 갤럭시 제품에 갤럭시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목표로 얘기했던 1억대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6·플립6 등은 물론 갤럭시 S21 시리즈와 갤럭시 A 시리즈에까지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노 사장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초는 갤럭시 S23·24까지 (AI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까 해서 1억대를 언급했다”며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해서 갤럭시 AI 지원 모델을 S22·23·24 등 S시리즈, Z4·5 등 Z시리즈로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갤럭시 탭 S시리즈 등 태블릿 제품에도 적용을 늘리는 등 갤럭시 AI가 지원되는 단일 규모를 꾸준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XR 기기 아닌 플랫폼 선출시 '깜짝 발표'… 폴더블 신제품 10% 판매목표

특히 노 사장은 올해까지 XR 기기 아닌 플랫폼을 출시 하겠다고 깜짝 발

표를 했다. 기기 개발 보다는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구글과 퀄컴이 XR 제품 출시를 위한 협력을 발표 후 꾸준히 함께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XR 디바이스를 먼저 먼저 내놓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XR 생태계를 구성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내로 에코시스템 관련 부분들을 준비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폴더블 신제품 판매 목표로 전작 대비 10% 이상을 제시했다. 노

사장은 “S24 시리즈도 전작 대비 10% 이상 판매율(성장)을 목표로 잡은 만큼 폴더블도 전작 대비 판매 성장률 10% 이상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대중화를 위해 갤럭시 AI 유료화 계획도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통상 AI 서비스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독료를 받고 있지만, AI 대중화를 위해 적어도 2025년 말까지는 모든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이후부터는 소비자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의 AI 규제 대상에 향후 삼성전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AI 규제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최근 삼성전자와 구글의 협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사장은 이에 대해 “EU가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삼성전자 모바일의 모든 비즈니스는 각 지역과 국가의 법,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규격이 정해지면 당연히 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혈당측정 기능 탑재, 당분간 어려워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6세대 폴더블폰인 Z 폴드6와 Z 플립6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AI를 탑재한 웨어러블 제품인 ▲갤럭시 워치7·울트라 ▲버즈3 시리즈 ▲갤럭시 링 등 총 7개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의 '혈당 측정' 기능 탑재 여부에 관심을 가져왔다. 다만, 이번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에 혈당 측정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사장은 “혈당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선행 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혈당은 정확성 등에 있어서 의료 쪽에 가까운 데이터로서 굉장히 정확한 수치를 만들고 각종 규제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갤럭시 링 등에 탑재된 광학식 센서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웨어러블 제품에 혈당 측정 기능을 추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갤럭시 링, '수면분석'부터 '카메라·알람제어' 기능까지

갤럭시 포트폴리오 중 최소형 폼팩터
행동 변화 유도, 컨디션 관리 도와

갤럭시 링	
규격	7.0×2.6mm
무게	2.3~3.0g
배터리	링 18(사이즈 5)~23.5mAh(사이즈 13) 케이스 361mAh
메모리	8MB
사이즈	9개(사이즈 5~13)
색상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출고가	49만9400원

자료: 삼성전자 /뉴시스그래픽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최초로 반지형태로 나온 '갤럭시 링'을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간 기대를 모았던 혈당 측정 기능은 제외됐지만 대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인공지능(AI) 헬스케어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 하루종일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알람제어와 사진촬영 기능 등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통해 갤럭시 Z 플립과 폴드6 등

을 공개하는 동시에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도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링'

은 최첨단 센서 기술이 집약된 기기로 갤럭시 포트폴리오 중 가장 작은 초소형 폼팩터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24시간 밀착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가벼운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착용이 가능하다.

'갤럭시 링'은 오목한 외관 디자인과 티타늄 5등급 마감 처리를 통해 스크래치에 강하다. 또 10ATM 방수 기능을 지원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성능은 별도 충전 없이 최대 7일 동안 사용가능하며 LED 조명이 탑재된 충전 케이스는 간편한 충전을 지원한다.

갤럭시 링은수면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수면을 이해하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매일 아침 기상 후, 전날 밤의 수면 점수와 다양한 건강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수면 분석은 ▲수면 중 움직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등 수면의 질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AI 기능 추가 '사용자 운동 유도'

링에는 갤럭시 AI를 활용한 새로운 헬스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인사이트와 동기부여 메시지를 제공해,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또 심박 변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에너지 점수'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럭시 링은 광범위한 일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심박수 알람' 기능과 '자동 운동 감지' 기능을 통해 심박수 측정은 물론 사용자의 운동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또 '활동 안 한 시간 알람' 기능은 사용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주목할 점은 갤럭시 링에 건강관리 기능 외에도 특별한 기능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링에는 알람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카 탑재됐다. 갤럭시 링을 착용한 후 '손가락 맞대기' 제스처를 실행하면 갤럭시 링과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시계 알람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 '삼성 파인드' 앱의 '내 링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갤럭시 링의 위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링·워치·버즈 소개 때마다 탄성... Z6 시리즈 에디션에 인파

현장르포

장내 마련된 1000석 가득 차
Z 폴드 수화연산 기능에 갈채
Z 플립 무지개·황금색 '이목'

“모니터자 관람객 보다 많잖아? 여기 갤럭시 언팩 대가줄 맞나요?”

10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카루젤 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위해 들어간 박물관의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니터자 작품을 보러 온 관광객인가 싶을 정도로 수 많은 인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긴 줄을 기다린 끝에 입구에 도착했

지만, 참석자 QR코드와 가방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행사장 안에 들어설 수 있었다. 행사장 안은 각국에서 온 취재진과 인플루언서, 관계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장내 마련된 1000석이 꽉 찬 것은 물론 몇 백명에 달하는 인파들이 뒤에 서있었다.

10분 가량 지났을까. 조명이 어두워지고 파리의 전경을 담은 영상과 함께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등장했다. 동시에 엄청난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는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갤럭시 Z6폴더블이 공개되고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7, 버즈3 시리즈가 차례로 소개될 때마다 탄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Z6폴드폰의 수화연산 기능이 소개될 때는 박수와 함께 '와우'라는 감탄사들이 쏟아졌다.

언팩 행사가 끝난 자 뒷 쪽에 마련된

체험관으로 인파들이 이동했다.

체험관 내부에는 각 국에서 참가한 인플루언서들이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다. 특히 갤럭시 링과 갤럭시 플립 Z6을 링 에디션에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었다.

브라질에서 왔다는 한 인플루언서는 “삼성이 최초로 공개한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에 가장 관심이 많다”며 “평소에 착용하고 다닐 만큼 가벼운지, 또 워치 만큼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 월드컵 에디션은 뒷쪽 벽 중앙에 가장 크게 전시돼 있었다. 특히 화려한 무지개색과 황금색이 이목을 사로 잡으며 가장 많은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7월 24일부터 '갤럭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갤럭시 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링'을 체험하고 있다.

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갤럭시 버즈3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